

보도시점 2023. 6. 15.(목) 10:30
(2023. 6. 15.(목) 석간)

배포 2023. 6. 14.(수) 14:00

과기정통부, 금융산업계와 손잡고 5천억원 투자 지원 등, 매체(미디어)·콘텐츠업계 “가뭇에 단비”

- 과기정통부-기업은행-아이피티브이(IPTV) 3사-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이하 ‘기업은행’),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이사 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아이피티브이(IPTV) 3사 임원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이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행사를 6.15.(목)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 등 매체(미디어)·콘텐츠 업계 기업인들도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MOU) 개요

- 일시/장소 : 23.6.15.(목) 10:30~11:30 / 1인미디어 콤플렉스(그랜드센트럴)
-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LGU+),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 내용 : 우수 콘텐츠, 콘텐츠 기업 및 미디어 융합 스타트업 투자·금융지원 협력

동 행사는 국제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 심화, 제작비 급증에 직면한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가 우수한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진출과 아이피(IP)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금융·산업계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에 따라, △ 정부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투자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 아이피티브이(IPTV) 3사 등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오늘 투자 활성화와 금융 지원 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식은 그간의 논의에 대한 중간 결실이자, 앞으로의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오늘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정부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업체의 제작비 급증 대응, 아이피(IP) 확보, 세계 진출 등을 위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②정책금융기관과 ③산업계, 나아가 ④해외로까지 투자와 금융 지원의 외연을 확장 ⇨ 약 5,000억원

① 정부 : 약 1,000억원 규모의 (목표) 신규 펀드 조성

3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원(목표) 규모로 신규 조성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크리에이터 분야의 미디어·콘텐츠 프로젝트나 지분에 투자하는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와 △ 메타버스·확장현실(X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하는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투자하는 디지털 콘텐츠 펀드의 조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성장 펀드(23년 1.5조원), 우체국 벤처캐피탈(VC) 펀드(24년~) 등 공공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의 하나로 미디어·콘텐츠 분야도 포함하여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② 정책금융기관 :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대출·보증

먼저 투자 관련, 기업은행과 협력해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는(23년 20억원 이상) ‘미디어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을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입주기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선정업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보증 관련,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미디어·콘텐츠 기업에게 약 700억원(23년) 규모의 대출·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작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들을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추천 기업들 중 상환 가능성 등 여신심사를 통하여 우대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 기업은행 :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최대 1.0%p 차감),
△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우대 (최대 0.4%p 차감)

③ 산업계 : 약 3,400억원 수준의 투자 유도

아이피티브이(IPTV) 3사(KT, SKB, LGU*)가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3,000억원 규모로 계획한 콘텐츠 공동수급 브랜드 아이픽(iPICK)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아이피티브이(IPTV) 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출자한 케이아이에프(KIF) 펀드(Korea IT Fund, '23년 총 440억원 조성)의 주요 투자 분야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포함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④ 해외 : 글로벌 투자자본 유치 노력

△ 대통령 순방 후속교류, △ 수출 개척단, △ 주요 국제 콘텐츠 마켓 및 행사 참가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먼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의 투자를 제안 했으며,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미주·중동), △ 아시아(Asia) 콘텐츠 어워즈 & 국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Global OTT) 어워즈(10월, 부산), △ 밍콤(MIPCOM*) 등 국제 콘텐츠 마켓 및 행사에서 글로벌 차원의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사 미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 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

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 관련,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동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피티브이(IPTV) 3사(KT, SKB, LGU*)는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 것을 환영하면서, 산업계도 콘텐츠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콘텐츠 산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기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 웨이브 이태현 대표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동투자에 대한 금융 및 정책지원을, △ 에이스트리 최문석 이사는 케이(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민간의 관심과 지원을, △ 남창원 트리니들 대표와 여주엽 올블랑 티브이(TV) 대표는 미디어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특화된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 확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기업은행과 아이피티브이(IPTV) 3사, 유관기관에 감사함을 전하며,

“금융기관, 미디어·콘텐츠 산업계와 협력하여 오늘 발표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철저히 실행해 나아가겠으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송진흥정책관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은태 (044-202-6550)
		담당자	주무관	호준혁 (044-202-6558)
관련 기관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 미디어 사업추진단	책임자	센터장	박균택 (02-317-6196)
		담당자	대 리	김시훈 (02-317-6149)

붙임 1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 체결 행사계획

□ 개 요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전략 (22.11월) 후속조치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3대 투자 물줄기(① 정부 투자, ② 산업계 투자, ③ 투자 혁신) 확대를 위한 실행 계획 발표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안) 주요내용 >

- ◇ 정부의 투자 확대 (약 1,000억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약 800억원), 산업계 투자 유도 (약 3,400억원)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투자물줄기 확대

* 협약 주체 : 과기정통부 - IBK 기업은행 - IPTV 3사(KT - SKB - LGU+) - 미디어 유관기관(KCA - RAPA)

□ 행사 계획

- (일 시) '23. 6. 15.(목) 10:30~11:30
- (장 소)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오픈 스튜디오
 - 정 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금융계 및 미디어 유관기관 : IBK 기업은행장, KCA·RAPA 기관장
 - 산업계 : IPTV 3사, OTT, 제작사,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 세부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0:30~10:35 (5분)	인사 말씀	장관님
10:35~10:45 (10분)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
10:45~10:55 (10분)	미디어-금융 유관기관 협약식 진행	
10:55~11:00 (5분)	기념 촬영	-
11:00~11:30 (30분)	미디어·콘텐츠 산업계 참석자 의견청취	-

참고

행사 참석자

구분	사 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 이력
1		김성태 (62년생)	기업은행 은행장	- 제27대 기업은행 은행장 (前) IBK캐피탈 대표이사
2		황현식 (62년생)	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 / LGU+ 대표이사	(前)LGU+ 컨슈머사업총괄 사장
3		정한근 (64년생)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	(前)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前)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4		강국현 (63년생)	KT 사장	(前)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前)KT 마케팅부문 부문장
5		김혁 (67년생)	SKB 부사장	(前)SK브로드밴드 미디어전략본부장 (前)SBS 미디어홀딩스 플랫폼기획팀장
6		정수현 (69년생)	LGU+ 부사장	- LGU+ Consumer부문 부사장 (前) LG전자 MC사업본부 부사장 (前) Sprint사 미국 북서부 지역 대표
7		이태현 (68년생)	웨이브 대표이사	(前)KBS 콘텐츠사업국 국장 (학력)고려대학교 철학과
8		여주엽 (85년생)	(주)올블랑 대표	- Allblanc TV 유튜브 채널 운영(구독자 202만, 건강)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前)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9		남창원 (85년생)	(주)트리니들 대표이사	(前)삼성전자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시청자간 양방향 후원 서비스 개발
10		권정식 (77년생)	(주)스워드엑스 대표이사	(前)㈜모비두 사업 총괄이사 (前) CJ ENM 정보전략팀장 - 미디어 커머스 B2B 솔루션/플랫폼 개발 및 공급
11		최문석 (64년생)	에이스토리 이사	(주)에이스토리 제작총괄 임원(본부장) (前)SBS 제작본부 국장 '싸인', '유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획·연출

붙임 2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계획

◇ 경쟁 심화, 제작비 급증, 수익 저하로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 ①정부의 투자 확대, ②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③산업계 투자 유도, ④글로벌 투자 유치를 통해 약 5천억원의 투자 물줄기 제공

1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시장 상황

- 미디어 플랫폼은 IPTV·OTT 등 인터넷 기반 매체로의 중심 이동¹⁾,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겪는 동시에, 제작비 급증으로 인하여 경영환경 악화

1) 11년 ⇨ 21년 매체별 매출액 변화

· 지상파방송 [3.9 → 4.0조원] : 정체	· 케이블TV [2.1 → 1.9조원] : 감소
· IPTV [0.6 → 4.6조원] : 1위로 급성장	· OTT [0 → 1.1조원] 메기 또는 상어

- 국내 OTT는 시장의 성장세 하락²⁾과 제작비 증가 [회당 제작비 : 16년 9억원 (도깨비) ⇨ 18년 20억원 (미스터선샤인) ⇨ 21년 30억원 (스위트홈)]로 적자이며, 그 폭도 심화되는 추세임

2) 국내 OTT 월간 순이용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 : 21년 46% ⇨ 22년 8%

< 국내 주요 OTT 영업손실 추이 >



-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비를 충당할 자체 자금이나 외부 조달 역량이 부족하여 글로벌 OTT와의 계약 시 IP를 확보하지 못해 흥행에 따른 수익을 거두지 못함



- 특히, 업계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의 경우에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글로벌 OTT만 제작이 가능해 콘텐츠 수출 우려

< 국내·외 OTT의 콘텐츠 투자 예시 >

글로벌 OTT	국내 OTT
넷플릭스 : 더 글로리 (600억원) 디즈니+ : 무빙 (500억원)	티빙 : 아일랜드 (200억원) 웨이브 : 검은태양 (150억원)

- OTT社의 투자 규모도 국내·외 사업자 간 격차가 커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외 OTT의 투자 규모 >

구분	2021년	2022년
넷플릭스	5,500억원 (글로벌 23조원)	未공개 (글로벌 22조원)
디즈니+	未공개 (글로벌 33조원)	未공개 (글로벌 43조원)
티빙	4,000억원 (2021년~2023년)	
웨이브	840억원	960억원

[출처 : 각사]

2 정부의 투자 실적 및 평가

- 지금까지 총 510억원을 조성하여, 방송 미디어·콘텐츠 분야 40개 기업에 444억원 투자 (프로젝트 투자 25건, 지분 투자 15건)

* 주요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 등을 통해 현재까지 161억원 회수

< 국내·외 OTT의 투자 규모 >

투자조합명	결성년도	조성액 (정부투자)	투자건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전문투자조합	2010년	150억원 (90억원)	15건
미시간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2011년	100억원 (50억원)	8건
케이엔디지털미디어콘텐츠1호투자조합	2021년	260억원 (160억원)	17건
-	-	510억원 (300억원)	40건

- 한편, VR, XR 등 실감 콘텐츠 등의 분야에 5,368억원 투자 (14년~22년말)
- 실감 콘텐츠를 제외하면,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펀드조성액 자체가 부족하여, 업계의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나 IP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

3 투자 활성화 및 금융 지원

- ◇ 정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업체의 제작비 급증 대응, IP 확보,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산업계, 나아가 해외로까지 투자와 금융 지원의 외연을 확장

⇒ 약 5,000억원 (정부·정책금융기관 1,800억원 + 산업계 3,400억원) 지원

① 정부 : 약 1,000억원 규모의 (목표) 신규 펀드 조성

- 3대 디지털 미디어³⁾·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신규로 조성 (1,000억원 목표 : 23년 400억원, 24년 600억원 목표)하여 마중물 역할 확대
- 24년 정부출자금은 기존 펀드 회수금 (약 200억원 추정) 및 재정당국 예산 협의

3) 22년 11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OTT	메타버스 미디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물리적 공간 확장 (국내시장→글로벌시장)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평면→초실감·버추얼)	창작주체의 확장 (방송사→누구나 활동)
		

- a)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 : OTT 및 크리에이터 분야 미디어·콘텐츠의 프로젝트나 지분에 투자 (24년, 예산확보에 따라 민간투자 매칭)

- 글로벌 진출, AI 접목·디지털 전환⁴⁾, M&A 등에 우대

4)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을 하여 시장을 제패 (모든 가입자의 시청습관, 취향 데이터를 2천여개 유형으로 분류)

- b) 디지털 콘텐츠 펀드 : 메타버스, XR, VR 등을 활용하는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투자 (23년 400억원, 24년 기존펀드 회수금 및 예산 확보에 따라 민간 투자 매칭)

▷ 한편, ㄱ)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위 혁신성장 펀드 (23년, 1.5조원), ㄴ) 우체국 VC 펀드⁵⁾ (24년~)의 중점 투자분야에 미디어·콘텐츠 포함 추진

5) 창업·벤처 투자펀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서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 · 20년~22년에 年 600억원을 조성했으나, 23년에는 당기순손실로 조성실적 없음

② 정책금융기관 :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대출·보증

- 정책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투자와 금융 지원을 제공

- a) 투자 프로그램 :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향후 3년 간 100억원 (23년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투자 프로그램'을 우리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향후, 기업은행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지원대상	투자제공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차세대방송 성장 기반 조성 사업 선정업체 (23년 기준 약 120개社),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입주기업 (누계 54개社)	기업은행이 지원대상 중 선정하여 투자 실시 ⁶⁾

6) 기업은행 투자와 병행하여 글로벌 엑셀러레이트 (2080 벤처스...)가 해외투자 유치 경험과 멘토링을 공유하며, 전파진흥협회 등에서 IR 교육과 전문가 매칭 제공

- b) 대출·보증 :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미디어·콘텐츠 기업에게 23년 약 7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제공

* 대출은 510억원 이상, 보증은 150억원 이상

- 과기정통부가 제작역량 (콘텐츠 우수성, 제작능력 등) 및 성장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해외유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하고

- 정책금융기관은 同 기업들 중 상환 가능성 등 여신심사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여 우대 조건으로 자금 공급

기업은행 (대출)	대출한도 상향, 대출금리 우대 (최대 1.0%p 차감)
신용보증기금 (보증)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우대 (최대 0.4%p 차감)

③ 산업계 : 약 3,400억원 수준의 투자 유도

- ICT Big Player인 IPTV社 및 이동통신社가 신규 수익원 발굴과 상생 차원에서 미디어, 특히 콘텐츠에 대해 투자하도록 협력

- a) iPICK : IPTV 3社 (KT, SKB, LGU+)가 글로벌 OTT社와의 경쟁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계획한 iPICK을 통해서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

- IPTV 뿐만 아니라, OTT에서도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b) **KIF⁷⁾** : 이동통신 3사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하여 출자한 펀드인 KIF의 23년 주요 투자분야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포함시킴 (23년 440억원)

7) Korea IT Fund : 22.12월 기준, 운용규모 5,129억원 (2002년 조성)
· ICT 분야에 투자하는 전문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

▷ 한편,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콘텐츠 업계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의 흥행이 광고 상품의 수출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이를 통한 수익과 매출 증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 (방통위 협의)

④ 해외 : 글로벌 투자자본 유치 노력

○ 순방 후속교류, 수출개척단, 주요 국제 콘텐츠 마켓 및 행사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 유치 지원

- 한·UAE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UAE 국부펀드⁹⁾에 OTT 등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의 투자를 제안하고 협의 추진

9) 對韓 투자 총 300억불 / 에너지·ICT·한류문화·농업·우주 등에 관심
· 총 11개 미디어·콘텐츠츠社 투자유치 제안서 제출

- △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아세안·미주·중동), △ Asia 콘텐츠 어워즈 & Global OTT 어워즈 (10월, 부산), △ 칸 시리즈, MIPCOM (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 등에서 투자설명회 및 미팅

4 향후 계획

